

지역 소식 통

고창 복분자주, 1억원
규모 호주 수출 선적 완료

고창 복분자주가 세계 시장에 보랏빛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지훈)가 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했다. 수출품목은 고창서해안복분자주의 대표 제품인 '선운'(도수 13%, 375ml)으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를 원료로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정성껏 빚어낸 고급 전통주다. '선운'은 2008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FC 정상회의 공식 민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 등으로 선정되며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수출 물량은 총 8만달러(한화 약 1억원) 규모로, 시드니 지역의 현지 마트 및 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보건소, 여름철
감염병 10월까지 방역 가동

정읍시 보건소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여름철(5월~9월)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병원균 증식이 활발해져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과 휴가철에는 단체 모임, 국내외 여행, 지역 행사 등이 증가하면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한 뒤 구토, 설사, 복통 등 장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보건소는 집단 설사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해 지역사회 확산을 빈틈없이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0일 개막

정읍시 천변 일원서 동학농민군 모습 재현 1894명 대규모 진군행렬

131년 전, 동학농민군의 우렁찬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진다.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정읍시 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올해 기념제는 특히 당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1894명의 대규모 진군행렬을 준비해 시민의 품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억압에서 피어난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백미는 단연 '1894 진군행렬'이다. 동학농민군이 정읍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던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이 행렬에는 참가자 전원이 농민군복장을 하고 정읍 시내를 함께 행진하며, 그날의 기개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현 전투 승리는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에 대항해 최



초로 대승을 거둔 날로, 혁명의 전략과 세력이 결집해 이룩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다. 이번 기념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참가자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가 참여해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가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념제의 세계화와 전국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렬도 함께 진행돼 뮌하우젠시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정읍 내장산이 여행하기 좋은 5월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정읍 내장산서 첫 도장을’

‘한국관광 100선’ 선정 기념 스탬프 여행자 여권 비치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정읍 내장산이 여행하기 좋은 5월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정읍시는 인증 현판 설치와 함께 스탬프 투어, 철도 연계 할인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내장산은 2025~2026년 선정자에도 이름을 올리며 6회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를 기념해 최근 내장산 관광안내소(옛 매표소 옆)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100선 ? 내장산' 특집 '공원' 인증 현판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87개 선정지서 진행하

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이벤트 기간 동안 내장산 관광객은 안내소에 비치된 여행자 여권이나 용지에 스탬프를 찍은 후, SNS 인증 또는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최다 방문 인증자 시상도 예정돼 있다. 스탬프 투어와 함께 주목할 만한 혜택은 코레일과 협력한 '지역사랑 철도 여행' 상품이다. 코레일 회원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해당 상품으로 정읍행 왕복 열차표를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내장산 등 정읍시 지정 관광지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다음 달 모든 열차 승차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40% 할인쿠폰까지 추가로 제공돼 알뜰 여행의 기회를 더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의 새로운 주민 편의시설 포토존 효과 톡톡

해돋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연결하는 '보행교'

부안군이 추진한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가 주민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완료됐다



부안군이 추진한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가 주민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완료됐다

고 밝혔다. 보행교는 그동안 해돋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먼 거리를 돌아야 했던 불편도 해소하며, 해돋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주민들이 쉼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신운천 낙우송길(2.1km)과 연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보행교는 '뱃머리 조형물'을 모티브로 신운천을 따라 흐르는 배의 형상으로 디자인되어 돛 위에 설치된 3m 높이의 망루가 전망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제2회 부안비밀축제가 열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행사에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인생 사진을 찍는 등 부안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심원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축제 3만명 북적

고창군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에서 지난 3~5일 열린 '제8회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이 약 3만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퓨전국악과 비보이 공연으로 시작된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비한 바지락 11톤이 행사 기간 중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시중가보다 30%



합인된 가격에 프리미엄 하전바지락을 구매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바지락 요리 런칭쇼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리전문가와 조리과 학생들이 개발한 '바지락 크랩치우더 수프'와 '바지락 바질페스토 카나페' 등의 메뉴가 시식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하전창년회와 부녀회가 운영한 바지락 분부식당에서는 바지락 전, 회무침, 비빔밥 등 전통적인 바지락 요리가 인기를 끌었다. 갯벌페이드는 예년과 달리 업그레이드되어 트랙터를 타고 갯벌 위를 달리며 세계자연유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최선”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7일 열린 5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5월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예산 편성의 핵심이 되는 시기"라며 "예산은 군정 운영의 토대이자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는 부처별 정책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전라이 가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

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공직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례 답습의 단순한 업무 처리자가 아닌 혁신적 사고와 변화에 대한 용기"라며 "우리의 관행이 군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당 부서와 읍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따뜻한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복지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